



KGC 전창진 감독

### 전창진 감독이 벤치를 지킨 이유 연세대와 연습경기 후 자진사퇴...사실상 마지막 지휘

떠나는 순간까지 지도자의 본분을 잊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5일 KGC인삼공사 지휘봉을 내려놓은 전창진(52·사진) 감독이 자진사퇴 직전 연세대와 연습경기에서 벤치를 지키며 팀을 이끌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15일 KGC 새 감독으로 부임한 전 감독은 당시 “좋은 구성원을 갖춘 팀을 맡아 기대되고 긴장된다”며 부푼 가슴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감독직을 수행한 기간은 채 한달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5월부터 전 감독은 불법 스포츠 도박 및 승부조작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동안 김승기, 손규안 코치가 대신 팀 훈련을 이끌어 왔다. 전 감독은 월봉도 KGC감독 부임 첫 달만 일부 지급받았을 뿐, 경찰 수사를 받는 동안에는 감독 업무 추진비와 차량 지원만 받았다.

KGC는 4일 안양체육관에서 연세대학교와 연습경기를 치렀다. 외국인선수 드래프트를 통해 선발한 찰스 로드(30)와 프랭크 로빈슨(31)이 합류해 치르는 첫 경기라 많은 팬들이 안양체육관을 찾았다. 전 감독은 팬들이 보는 앞에서 벤치를 지키며 선수들에게 작전지시를 내리는 등 평소처럼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가끔씩 훈련장을 찾아 선수들을 지도하기도 했지만 연습경기에서 벤치에 앉기는 KGC 부임 후 이날이 처음이었다. 연습경기를 마친 뒤 전 감독은 KGC 조성인 단장에게 자진 사퇴의 뜻을 전했다. 자신이 그토록 기대했던 KGC와의 인연을 경기장에서 마무리 지은 셈이다.

한 농구인은 “감독직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떠날 결심을 하고 마지막은 지도자로서 선수들과 함께하기 위해 연습경기 때 벤치에 앉은 모양이다”라고 말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 배드민턴 남북대회 추진 ‘서틀콕 외교’ 꽃 피울까

대한배드민턴협회, 친선경기 비밀리에 접촉

배드민턴이 스포츠 외교를 통한 남북 민간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배드민턴협회 신계륜 회장(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배드민턴 친선대회를 통한 ‘서틀콕 교류’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 신계륜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대회는 세계 최정상권을 지키고 있는 한국 대표팀과 북한 대표 선수들의 친선 경기다.

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배드민턴은 북한에서도 관심이 높은 스포츠다. 북한 중앙 기관 간부들의 배드민턴 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고 조선중앙통신도 이를 제휴 외신 통신사에 사진과 함께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남과 북의 서틀콕 민간교류 추진은 최근 관련 기관과 국제 스포츠 단체에 절차상의 문의가 이어지며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 정부관계자는 “해의 배드민턴 협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북한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북한이 적극적인 참여를 결정하면 개최가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 난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국민정서, 정치적인 해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그동안 꾸준히 공개적으로 북한에 장비 제공 의사를 전하는 등 적극적으로 우정의 손을 내밀었다. 북한 배드민턴은 여러 제한된 여건으로 국제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평양과 각 지역 간부들이 대회를 열고 참가할 정도로 높은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으로 알려졌다.

개최지는 서울로 계획되고 있다. 가장 큰 관건은 북한의 대회 참가 의지다. 북한은 지난해 열린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예정이었지만 남북관계 경색의 영향으로 최종 불참했다.

그동안 국제 외교 무대에서 스포츠는 큰 역할을 해왔다. 1971년 4월 스포츠외교가 전 세계가 깜짝 놀라게 했다. 굳게 닫힌 중국의 죽의 장막을 미국 탁구 대표 선수들이 활짝 열은 ‘핑퐁 외교’다. 1971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미국 대표 선수들은 중국 선수들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해 친선 경기를 했다. 1949년 공산당 정권 수립 이후 반목했던 미국과 중국은 핑퐁외교를 시작으로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1979년 미중 수교까지 손을 잡았다. 남북은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단일팀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 한화 ‘몽치’ 정현석 암 이기고 돌아왔다

작년 12월 위 절제수술...올해 3월부터 재활  
“기다려준 한화 감사...실력으로 보답하겠다”

5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 의외의 인물이 나타났다. 한화 외야수 정현석(31). 처음에 야구 관계자들은 인사하러 잠깐 들른 줄 알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한화의 1군 엔트리에 등록이 돼 있었다. 지난해 12월 한화 선수단의 정기 건강검진에서 위암 판정을 받은 이래로 아득할 줄만 알았던 1군 복귀가 현실이 된 것이다. 한여름에 작은 기적을 담고 온 정현석은 살은 빠졌으나 몸은 더 단단해져 돌아왔다. 그리고 고비를 넘긴 사람 특유의 낙천성이 있었다.

#### ●“기다려준 한화 구단에 고맙다”

정현석은 암에 걸린 선수를 방출시키지 않고, 끝까지 풀어준 한화 구단에 대한 감사를 가장 먼저 전했다. “충분한 휴식과 최대한의 지원을 해줬다.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착실히 몸을 만들어서 합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현석은 위암 발병 직후인 12월 12일 위를 절반 이상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9일간 입원을 했고 3월까지 강원도와 제주도 돌며 요양을 전념했다. 인생에서 가장 막막한 순간이자 고마웠던 시간이었다.

“걷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못하는 몸 상태였다.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힘들었다. 그러나 어려운 때가 되어보니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의 애뜻함, 소속팀과 동료와 팬의 소중함을 잊을 수 없었다.”

3월부터 산행과 웨이트트레이닝 등, 개인훈련이 시작됐다. 3월 3일 충청도 서산

의 재활군에 합류했다. 한화 구단은 정현석만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주는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5월 15일 육성군에 진입했고, 6월 19일부터 2군 경기를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8월 5일까지 2군 경기를 뛴 뒤 1군의 호출을 받았다. 한화 김성근 감독은 “때가 되어서 올랐다”고 짧게 말했다.

●“암과 투병하는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고 싶다”  
정현석은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고 싶다. 그들이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열심히 하겠다”고 목표를 말했다.

역시 암과 싸우고 있는 NC 투수 원종현에 대해서도 정현석은 “연락해본 적이 없고,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 친구가 항암치료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속상하고 아쉬웠다. 나처럼 항암치료만 안 받아도 회복이 빠를텐데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자기일처럼 말했다.

정현석이 없는 동안 한화 동료들은 그의 별명인 ‘몽치(힘이 세다는 의미)’를 모자에 새기고, 뛰었다. 한화 구단은 그를 모델로 CF도 찍었다. 그 마음을 모를 리 없는 정현석은 “내가 힘을 내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이유였다. 고맙다. 그러나 팀이 어려운데 내가 힘이 못 되어줘서 고마움 이상으로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자극적이지 않으면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다. 좋은 것만 먹고, 잠도 꼬박꼬박 자니까 더 오래 살 것 같다”면서 정현석은 웃었다.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였다. 정현석의 야구인생이 다시 시작됐다.

문학 | 김명준 기자 galzby@donga.com

한화 외야수 정현석은 지난해 12월 위암 판정을 받고 위 절제 수술을 받은 뒤 1군 복귀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5일 문학 SK와의 원정경기를 앞두고 1군 엔트리에 합류해 훈련하고 있다. 수술 전보다 살은 빠졌지만 건강한 모습이다.  
문학 | 김민석 기자 marinebob@donga.com



롯데 린드블럼

### 린드블럼 “유희관, 제이미 모이어 같았다”

“유희관 경기 지배”...맞대결 패배 인정  
“직구 커맨드·체인지업 좋아 타자 유리”

“모두가 공이 빨라야 경기를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상대 투수였지만, 그에게도 인상 깊은 호투였다. 롯데 외국인투수 린드블럼(28·사진)이 자신과 선발 맞대결을 펼치 승리한 두산 유희관(29)의 피칭에 엄지를 치켜들었다.

린드블럼은 4일 울산 두산전에 선발등판해 8이닝 3실점으로 호투했으나, 패전의 명을 썼다. 상대 선발 유희관이 8이닝 무실점하는 등 타선이 막히면서 0-3으로 패배하고 말았다. 6월 26일 사직 넥센전에서 7이닝 무실점으로 9승째를 올린 뒤, 6경기째 승리를 추가하지 못하고 있다. 지독한 ‘아홉수’다.

반면 유희관은 벌써 14승째(3패)를 거두며 다승 단독선두를 달고 있다. 린드블럼에 비해 타선의 득점지원도 잘 받고 있고, 승운도 따르는 편이다. 전날 돌의 호투는 모처럼 깔끔한 ‘투수전’을 이끌었다. 유희관도 승리 후 “상대가 좋아서 그런지, 점수를 주지 않고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집중할 수 있었다”며 린드블럼 덕분에 ‘상

승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둘의 직구 최고구속은 무려 20km 가량 차이가 났다. 정반대 스타일이다. 린드블럼은 최고 151km, 반면 유희관은 최고 132km에 직구 최저구속은 117km에 불과했다. 110km대 공이 직구인지 변화구인지 분간을 하기 힘들 정도다.

5일 경기를 앞두고 만난 린드블럼은 유희관에 대해 “마치 제이미 모이어(43·은퇴)를 보는 것 같다. 경기를 지배하려면, 모두가 공이 빨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이어나 유희관은 나름의 방식대로 지배한다”며 “직구 커맨드나 체인지업이 좋으니 타자들을 유리할 수 있다. 메이저리그에도 80마일(약 129km) 정도의 공을 던지는 투수들이 있다”고 말했다.

린드블럼은 빠른 공을 기본으로,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는 스타일이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승패는 내가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마운드에 올라가서 상대할 타자만 생각한다”며 “어떤 경기도 난 0-1로 뒤진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마인드가 잡히고, 끝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던질 수 있다”며 “강한 정신력”을 과시했다.

윤산 |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 한화 새 외국인투수 로저스 오늘 출격

영입 나흘만에 1군 합류...법 개정 혜택  
한화, 양키스 잔여연봉·옵션 추가 부담

한화의 새 외국인투수 에스밀 로저스(30·사진)가 마침내 마운드에 오른다.

한화 김성근 감독은 5일 “새 외국인투수 에스밀 로저스가 6일 대전 LG전에서 선을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감독은 그동안 선발로 던졌던 루키 김민우를 불펜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로저스는 속전속결로 취업비자를 받아냈다. KBO리그 선수로 언제든 출전이 가능하도록 4일에 선수등록까지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다. 1일 영입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출전준비를 끝냈다. “그동안 문화·예술·체육인의 경우 국내에 입국한 뒤 해외로 다시 나가서 취업비자를 받아왔으나 국내에서도 받아도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어 혜택을 봤다”고 구단 관계자가 귀띔했다.

구단은 세간에 알려진 로저스의 몸값에 대해서 설명했다. 100만 달러 혹은 잔여시즌 선발로 출장 가능한 경기수를 감안해 등판만 해도 한 경기당 1억 원 정도를 받는 셈이라는 얘기를 부담스러워했다. “로저스가 뉴욕 양키스의 40인 로스터에 빠진 것을 알고 접촉했다. 40인 로스터에 빠져도 풀시즌 개런티 연봉은 다 받기로 계약이 된 상태였다. 양키스는 마이너리그에 내려 보내도 잔여기간 동안 64만 달러를 더 줘야하는데 우리가 그 연봉을 부담하면서 플러스알파를 보장하고 데려온 것”이라고 영입 과정을 설명했다.

양키스에 지불한 이적료는 5만 달러였고, 로저스가 한국행을 결정하도록 지급한 플러스알파를 포함하더라도 세간에 알려진 정도의 액수는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즌 일정의 60%를 넘어간 상황에서 한화는 통근 투자를 했다. “물 들어올 때 노는 것”이라는 말처럼 이번 시즌 과감한 투자로



한화 로저스

KBO리그 흥행의 물풍을 이끌었고 모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온 한화로서는 이미 들어간 돈에 10억원 가량을 더 추가한다고 해서 크게 손해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구단 관계자는 “9월에 결과를 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현재 투수진이 고갈된 상태에서 많은 이닝을 책임져줄 선발투수가 필요한 한화에 로저스는 어떤 결과를 안겨줄지, 답은 조만간 나올 것 같다.

한편 한화 외야수 이상영은 왼쪽 햄스트링 통증으로 이날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김중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